

랜선라이프

크리에이터가 사는 법

“연예인 인기 못지 않죠”

유명 BJ TV 진출 활발

《Broadcasting jockey》

MBC, 축구전문BJ 섭외 화제 JTBC ‘랜선 라이프’ 내달 방영 유튜브 크리에이터 샐 답아

TV 중심으로 활동하던 연예인들의 인터넷 방송 진출이 활발해지는 한편 유튜브 크리에이터나 BJ 등 ‘인터넷 스타’들의 TV 출연도 급증하고 있다.

방송국들도 젊은 시청자의 시선을 끌기 위한 BJ를 섭외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전통적인 미디어와 유튜브로 대표되는 새로운 플랫폼 사이의 경계도 허물어지는 모양새다.

MBC는 이번 러시아 월드컵 디지털 해설위원에 축구전문 BJ 갑스트를 발탁했다. 가끔 비속어를 날릴 정도로 직설적이고 시원한 중계에 B급 정서까지 갖춘 갑스트를 해설위원으로 발탁한 일은 파격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갑스트는 러시아 현장에서 중계하지는 않고 MBC 중계를 보면서 인터넷 방송으로 다시 중계한다.

그의 중계방송은 반응이 폭발적이다. 거친 직책을 아끼지 않은 갑스트의 한국-스웨덴 중계는 18만 명이 시청했다.

MBC 관계자는 갑스트 발탁 배경에 대해 “전통적인 미디어인 TV의 시청 연령대는 올라가는 가운데 젊은 시청자들과 소통하고 호흡하기 위해 지상파 방송에 등장하지 않았던 BJ 갑스트를 섭외했다”며 “매년 10만 명 이상이 접속할 만큼 젊은 층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먹방(먹는 방송) BJ 입짧은 햇님은



BJ 갑스트



BJ 입짧은 햇님

tvN ‘놀라운 토요일’에 출연 중이다. 그는 프로그램에서 음식을 최대한 맛있게 먹어 출연자들의 승리욕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

“놀라운 토요일”을 연출하는 이태경 PD는 “‘일당 8인분’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다가 입짧은 햇님을 섭외했다. 문세운과의 조합이 기대 이상이다”고 말했다.

175만 구독자를 거느린 뷰티 유튜버 이사베는 TV 출연을 빨리한 경우다.

그는 온스타일 ‘갯잇뷰티’에서 뷰티 팁을 전수했는데 최근에는 MBC TV ‘라디오스타’에도 출연해 지상파로 활동 변경을 다했다.

이후 디지털 싱글을 내고 KBS 2TV ‘뮤직뱅크’에도 출연했다.

여자 심리 전문 유튜버 채재tv를 운영하는 채희선은 TV조선 ‘여자가 속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에 출연한다.

여성들의 애환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토크쇼인 이 프로그램에서 채희선은 함께 일하는 남자 동료에게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너랑 잘 해보는 건데”라는 말을 듣고 불쾌했던 경험담을 공개하기도 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TV에 출연해 젊은 시청자들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자 아예 이들의 삶을 다루는 프로그램도 등장한다.

JTBC는 다음 달 6일 인기 1인 크리에이터들의 삶을 보여주는 리얼리티 프로그램 ‘랜선 라이프’를 첫 방송한다. 1인 크리에이터들의 콘텐츠 제작 과정과 카메라 밖의 삶을 공개할 예정이다. 게임방송 유튜버 ‘대도서관’과 ‘용담’ 부부, 먹방 BJ ‘벤츠’, 뷰티 크리에이터 ‘신남’ 등이 출연한다.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젊은 시청자를 끌어들이 수 있는 콘텐츠라는 점에서 앞으로 이들의 TV 출연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방송 관계자는 “BJ들은 콘텐츠를 잘 만들고 동시에 이미 그분들 자체가 콘텐츠다. 이 때문에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BJ들은 이미 방송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 TV 프로그램 제작진의 좋은 파트너가 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KBS 1TV ‘시사기획 창’ 남극 빙봉 탐사 방영

오늘 밤 10시 ... 배우 김여진 내레이션

KBS 1TV는 26일 밤 10시 ‘시사기획 창’에서 우리나라 남극 진출 30주년을 맞아 채빙선 아라온호의 남극 빙봉 탐사(사진)에 동행해 취재한 내용을 방송한다고 25일 밝혔다.

제작진은 특히 남극의 얼음들이 녹아내리는 현상에 주목했다.

최근 과학자들은 1992년 이후 남극에서 3조의 빙하가 녹아내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2012년 이후 최근 5년 사이 빙하가 녹아내리는 속도가 급증했다.

얼음이 줄어드는 곳은 대부분 서남극에 집중돼 있다. 가장 많이 녹은 서남극 지역 파인 아일랜드 빙하의 경우 지난 25년간 얼음 두께가 약 30m나 줄어들었다. 1995년부터 2017년까지 25년 동안 지구의 바다 높이는 평균 7.6mm 상승했는데 해수면 상승의 80%가 서남극 지역에서 녹은 얼음에 의한 것이다. 특히 라스 지역에서는 지난해 6월 서울시 면적의 약 10배에 달하는 거대한 얼음판이 떨어져 나가 충격을 주기도 했다.

광부들에게 탄광의 위험을 경고하는 카나리아처럼



빙봉은 지구 온난화의 위험을 알려준다. 방송에서는 지난 3월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출발한 채빙선 아라온호가 라스 빙봉 탐사에 도전하지만, 얼음길 이 막혀 눈물을 머금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사연도 소개된다.

이번 프로그램 제작을 맡은 이은정 과학전문기자는 2010년 아라온호의 첫 남극 항해에 동행해 국내 언론으로는 처음으로 남극 대륙 탐사 과정을 보도했으며 이번 취재까지 포함해 남극에 3번 다녀왔다.

내레이션은 배우 김여진이 맡았다. 그는 “뜻깊은 다큐멘터리에 목소리로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다. 남극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발목 부상’ 지드래곤, 군병원 특혜 입원 의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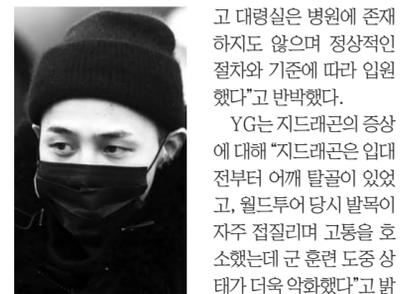
YG 측 “특실 아닌 일반병사 1인실”

군 복무 중인 박병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0·사진)이 군 병원 특혜 입원 의혹에 휩싸이자 소속사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25일 “지드래곤이 머문 병실은 특실이 아닌 작은 일반병사 1인실이었다”며 “면회 방문객들이 많은 병원의 특성상 주변의 소란과 혼란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였을 뿐 특혜 의혹은 사실무근임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한 인터넷 매체는 육군 3사단 백골부대에서 복무하는 지드래곤이 발목 통증으로 국군양주병원의 일명 ‘대령실’로 불리는 특실에 입원했다고 보도했다. 일반 병사의 경우 4, 6, 8인실에서 지내지만 지드래곤은 일반병에도 ‘대령실’에 입원 중이면서 특혜 의혹을 제기해 인터넷을 들끓게 했다.

YG는 “가족에 확인한 결과 보도는 매우 악의적이고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면서 “다육이 특혜는 전혀 없



고 대령실은 병원에 존재하지도 않으며 정상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입원했다”고 반박했다. YG는 지드래곤의 증상에 대해 “지드래곤은 입대 전부터 어깨 탈골이 있었고, 월드컵 당시 발목이 자주 접질리며 고통을 호소했는데 군 훈련 도중 상태가 더욱 악화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2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KBS 뉴스광장	5:00 FIFA 월드컵 러시아 2018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FIFA 월드컵 러시아 2018 기획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2018 FIFA 러시아월드컵 하이라이트 볼터치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여영차 바다야	25 닥터 365 30 나도 엄마야
9	30 KBS 뉴스	00 파도야 파도야 40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검법남녀 (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UHD 명품역사관 정비록 (재) 5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너도 인간이냐?(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10 생생정보 스페셜	00 12 MBC 뉴스 20 2018 FIFA 러시아월드컵 하이라이트 볼터치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30 2018 러시아월드컵 하이라이트
1	00 KBS네트워크특선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 50 다큐 공감 (재)	00 다큐멘터리 3일 (재)	30 가자! 낭만 고향 (재)	
2	00 팔도방송 (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25 통일전망대 (재)	00 뉴스브리핑
3	10 FIFA 월드컵 러시아 2018 하이라이트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05 신비한TV 서프라이즈 스페셜 15 프리파라 3 45 뽀빠뽀 모두야 놀자	
4	00 사사건건	00 여유만만(재) 55 제보자들(재)	15 비밀과 거짓말 (재)	00 고향전문록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뉴스콘서트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월드컵 투데이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영재발굴단 (재)
7	00 KBS 뉴스 7 35 6.13 프로젝트 공생	50 인형의 집	10 비밀과 거짓말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10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25 내일도 맑음	30 글로벌24 55 1대 100	55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KBS 뉴스 9			
10	00 시사기획 창 55 UHD 숨터	00 FIFA 월드컵 러시아 2018	00 2018 FIFA 러시아 월드컵	00 기쁨의 멜로
11	00 KBS 뉴스라인 40 트레킹로드 세상을 걷다			10 불타는 청춘 1~2부
12	30 독립영화관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띠띠뽀 띠띠뽀(1~2)(재)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특!특! 보니 하니1~5
06:00 한국기행(재)	12:10 행복한 교육세상	19:00 미니특공대 X(1~2)
06:20 세계테마기행(재)	13:00 다큐 오늘	19:30 EBS 뉴스
07:00 강철소방대 파이아로보	13:10 경이로운 자연의 세계	19:50 극한직업 스페셜(재)
07:30 띠띠뽀 띠띠뽀	13:40 백치미(재)	20:40 세계테마기행 《마다가스카르의 어린 왕자 2부》
08:00 당동당 유치원1~2	14:30 미니특공대 x	21:30 한국기행 《한반도 평화특집.바람이 불어오는 곳》
08:30 몬카트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21:50 EBS 다큐프라임 《5원소, 문명의 기원》
08:45 방귀대장 뽀뽀이	15:15 파프리카	22:45 글로벌 아빠 찾아심판리
09:00 뽀뽀뽀 뽀로로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23:55 백치미 누군가 춤추고 있다, 몰래카메라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5:45 강철소방대 파이아로보 1~2	24:45 지식채널e
09:40 메디컬 다큐 - 7요일	16:15 주사위 요정 큐비쥬	
10:30 한국기행	16:30 방귀대장 뽀뽀이(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쟁반짜장면과 단무지무침》	16:45 당동당 유치원1~2	
	17:15 마사와 곰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6년생 일관적이고 객관적으로 조처하라. 48년생 궁극적으로는 같다는 것을 알아. 60년생 심대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72년생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 들 것이다. 84년생 작은 것을 얻으려다 큰 것을 잃을 수도 있음을 알아. 행운의 숫자 : 23, 78	42년생 소비적이어서는 아니 된다. 54년생 신중하게 처리하지 않다면 결림돌을 만날 수 있다. 66년생 희망을 여는 디딤돌이 마련될 것이다. 78년생 아무 쪽에도 쓸모가 없었다. 90년생 지나친 집착은 심신만 피곤하게 할 뿐이다. 행운의 숫자 : 21, 82
37년생 굳이 자초할 필요까지는 없느니라. 49년생 부실한 결과를 초래하게 하는 원인이 보인다. 61년생 극복 할 줄 아는 성숙함이 필요하다. 73년생 파장에 남은 부스러기만 살피고 있는 형상이다. 85년생 아직은 활발하나 중단 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83, 14	43년생 특별한 점이 있을 것이다. 55년생 불합리한 점을 해소 해야만 목적하는 바를 도모할 수 있다. 67년생 많은 허점들이 보인다. 79년생 걸치려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 진정한 실속을 찾아라. 91년생 돌발 상황이 나타날 수 있음을 알아. 행운의 숫자 : 77, 29
38년생 중국적으로는 해결점에 이르게 될 것이다. 50년생 바탕이 튼실해야 진행에 차질이 없으리라. 62년생 대상을 넓히고 다양하게 섭렵 하자. 74년생 집중할 수 있는 열정이 필요하다. 86년생 대박으로 인해서 부가적 이익이 따른다. 행운의 숫자 : 94, 31	44년생 구체적이지 않다면 의미가 없다. 56년생 마음을 놓은 데서 실수가 비롯되리라. 68년생 예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기회를 접할 수 있다. 80년생 탄력을 받으면서 어느 때보다 강한 힘이 발생한다. 92년생 관계가 긴요하다. 행운의 숫자 : 27, 95
39년생 허는 열망과 망신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51년생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해야 할 때가 되었다. 63년생 원점으로 복귀하게 될 것이다. 75년생 집중할 수 있는 할 시점임을 알아. 87년생 절대로 간단하게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행운의 숫자 : 89, 84	45년생 지나치다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기라. 57년생 실속이 있다. 69년생 보편성에 기반을 두어야 실력을 갖는다. 81년생 가까운 이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93년생 좌충우돌과 다사다난함을 뒤로하고 성사되는 쪽으로 기울었다. 행운의 숫자 : 87, 19
40년생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도 있는 마당이다. 52년생 오히려 상대가 더 바라고 있던 바이기도 하다. 64년생 알찬 결실을 거두게 된다. 76년생 진행 방향으로부터 장애요인이 드러난다. 88년생 상대로부터 뜻밖의 제안을 받을 수도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52, 10	34년생 출발은 무난하나 단속적인 상황이 나타날 것이니라. 46년생 이제부터 본격적인 상황이 전개 될 것이다. 58년생 알고도 내버려 두다면 큰 코 다친다. 70년생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82년생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운의 숫자 : 20, 33
41년생 한꺼번에 행한다면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53년생 순발력 있게 대처하라. 65년생 시작적으로만 평가하려 들지 말자. 77년생 수고로움을 덜어 주는 이가 나타날 수도 있다. 89년생 점점 영향력이 커지는 대국에 놓여 있다. 행운의 숫자 : 26, 43	35년생 생각하고 있는 바보다 더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을 알아. 47년생 마음먹고 있던 일은 잘 이루어지리라. 59년생 불필요하다면 버려라. 71년생 변화의 폭이 크다. 83년생 근본적인 원칙을 중시하고 그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12, 18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사랑” ☎010-9790-8237